



담배 경고문구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난해 7월 발표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담배 경고 문구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뱃갑 전면의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문구 대신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가 들어간다.

또 담뱃갑 후면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바뀌게 된다. 경고문구 크기 역시 포장지 면적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번에 바뀌는 경고문구는 오는 2007년 4월 1일까지 사용되며 이후 2년간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가, 2009년부터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면 끊기 어렵습니다'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매일경제 2005. 3. 18

출산 많이 할수록 치아 상태 나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치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대학 스테파니 러셀박사는 미국 여성 2천6백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출산이 많은 여성일수록 치주질환이나 치아 결손, 충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러셀박사는 그 원인으로 아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집안일에 시달려 치과를 자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치과의사들이 X선 촬영이나 마취제 사용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치아 치료를 분반 후로 미룰 것을 권고하지만 여성들이 정작 애를 낳은 뒤에는 아이 돌보기에 바빠 치과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YTN 2005. 3. 16

식약청, 황사대비 식품 위생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채소와 과일 등이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된 식품은 충분히 씻어서 먹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마련, 각 지방청과 시·도를 통해 식품관련업소 및 일반 가정에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했다.

요령에 따르면 황사에 밀봉 포장하지 않은 과일·채소류와 건조 수산물 등은 특히 주의하고 야외 조리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황사 발생 시 채소와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먹고, 반드시 손을 씻은 뒤 식품을 조리해야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내일신문 2005. 3. 15